

'연0%대' 예금금리 눈앞...이르면 이번주중 내린다

KB농협 등 수신금리 인하 검토...대출금리는 내달 돼야↓

내년 新예대출 영향으로 수신금리 인하폭 크지는 않을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추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번주 중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 1% 초반대(12개월 만기 기준)인 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만큼 만큼 더 내려간다면 '0%'대 상품의 등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범위 내에서 수신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중 예금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은행마다 예금금리 인하 시점은 다르지만 내리는 곳이 생기면 줄

줄이 인하는 경향을 봤을 때 이르면 이번주 중 줄지어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주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왔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전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20~40bp(1bp=0.01%p) 내렸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연 1.70%에서 1.45%로 25bp 내려갔다. 코드K 자유적금 금리는 1년 기준 연 2.20%에서 1.80%로 40bp 인하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 취급을 하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예금금리를 유지해왔지만 한은의 추가 인하나 예상돼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12개월 기준 예금금리는 현재 연 1.25~1.50% 수준이다. 올해 초만 해도 은행의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2%대 초반이었다. 1년도 안돼 1%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미 지난달 정기예금 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20~30bp 인하해 연 1.00%를 적용하고 있다. 추가 인하시 초저금리인 0%대로 기본금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1~6개월 만기 초단타 상품의 예

금금리는 이미 0%대로 내려왔다. 12개월 만기 기준 '신한S드림 정기예금'은 0.80%, 우리은행의 '키위 정기예금2차'는 0.90%다.

은행 관계자는 "예상된 기준금리 인하나 선반영된 부분도 있어 급격한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로 내려가도 기준금리 인하폭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신예대출 규제를 감안할 때 시중은행들이 예금자의 이탈을 불러오는 공격적인 예금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예대출에서는 가계대출의 비중이 15% 상향되는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15% 하향한다.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해야 한다.

예대출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시중은행은 예대출을 100%를 넘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신예대출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부분이 100%를 초과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의 신예대출 산정 방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예대출은 97.7%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103.2%로 5.4%p 오른다. 신한은행은 97.0%에서 100.5%, 우리은행은 96.9%에서 101.2%, KEB하나은행은 97.3%에서 101.2%로 각각 상승한다.

대출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다음달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매달 15일에 공식되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에 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 등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다만 주로 금융채 5년물(AAA 등급)이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금융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채권 가격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채 5년물은 기준금리 인하 전만 1.570% 수준에서 지난 17일 1.651%로 올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강해 선반영된 부분의 되돌림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3~4달 동안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선반영된 부분의 반작용으로 상승하는 것"이라며 "추후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과정에서 적정 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뉴스1

나주혁신도시에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한방병원 오픈

내일 공식 개관...주민들 정주여건 개선 기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구축한 동신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와 한방병원이 오는 22일 공식 문을 연다.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는 연면적 2만6680㎡,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다. 1층은 북카페와 편의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은 지역민과 동신대 재학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시민운동처방센터가 들어서 대학과 지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6~8층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보건복지대학 재학생들을 위

한 교육·임상 실습시설, 동신대 에너지융합대학 2개 학부 8개 전공 소속 미래 에너지 신산업 인재들을 위한 현장 실습 공간을 비롯해 산학공동연구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창작공간)가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동신대 한방병원은 3~5층에 83개 병상과 건강검진센터, 체력증진실,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과 소공원장이 마련돼 지역민들의 쉼터, 문화공간 역할을 한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에너지클러스터를 산·학·연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혁신도시 기업은 물론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불매운동에 '아사히 맥주' 판매

중단 수준...日 맥주 수입 99.9% ↓

한·일 무역 갈등 이후 수입 맥주 자리 1위를 놓치지 않던 일본 맥주의 수입량이 9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판매 중단 수준이다.

18일 tbs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관세청 정우용 사무관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일본 맥주 수입량은 4.2톤이고, 수입액은 6000달러(약700만원)"라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 동기 일본 맥주 수입액이 674만9000달러(약79억 6000만원)였다"며 9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0.1% 이하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입 중단 사태에 가깝다. 그동안의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등 일본 맥주들이 수입 맥주 사 이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감한 수치다.

세 881 회차 당첨결과 (2019년 10월 19일 추첨)

4	18	20	26	27	32	+	9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503,212,282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7	49,815,17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89	1,524,72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6,952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39,84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업일)



10월 가전 매출 '썩썩'

'김치냉장고·온수매트 인기 덕'

10월이 백화점의 가전제품 성수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전 매출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과 3월에 이어 10월이 3번째로 높았고 20일 밝혔다.

5년 전인 2014년만 하더라도 10월에 가전 매출이 가장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급변했다.

혼수 가전 수요에 김치냉장고, 온수매트, 가습기, 난방용품 등 계절가전 수요가 집중된 덕이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10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김치냉장고의 가격이 최근 비싸진 영향이 컸다.

또 온수매트가 겨울철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최근 트렌드도 10월 가전 매출 신장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5만~10만원대 저렴한 전기매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30만~40만원을 호가하는 온수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